

3주차

국역체제(國役體制)의 붕괴와 양천제(良賤制)의 약화

김 성 우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15세기: 이상적인 왕조 체제

- 성군(聖君)과 현신(賢臣)들의 조우
- 경제 발전과 재정 건전성

02. 연산군(燕山君)의 폭정과 체제 위기

- 급증하는 왕실 재정
- 연산군의 폭정

03.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

- 연산군의 유산
- 국가재정의 위기
- 개혁 운동의 전개와 좌절

04.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

- 증가 일로의 부세
- 방납구조(防納構造)
- 양인층의 몰락

05. 양인층(良人層)의 몰락과 노비(奴婢)의 급증

- 양인층의 사회적, 경제적 지위
- 양인층의 국역 부담 변화와 계층 분화
- 노비층의 증가와 법제 변화
- 멸망을 목전에 둔 왕조

3차시

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

학습목표

- 연산군이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살펴본다.
- 국가재정의 위기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.
- 개혁 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연산군의 유산
- 국가재정의 위기
- 개혁 운동의 전개와 좌절

연산군의 유산

연산군 이후 중종 시기의 재정 상황

- 왕실: 직계(直啓) 형식으로 공공재원을 빼돌림
- 왕실 재정 = 국가 재정인 상황
- 중종 후반기 왕실 재정: '신유공안'의 10배

명종 시기의 재정 상황

-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의 섭정 시기
- 재정지출이 중종 대 보다 더 심함
- 내수사가 자체적으로 공문 발행: 노비와 토지를 약탈
 - 내수사(內需司): 왕실 소속 재정 담당 부서
- 관료층, 서리층도 부패가 심함

국가재정의 위기

15세기 후반

1년 전세 수입

잉여분

예비비 비축

- 25만 섬 내외의 전세 수입
(함경도/평안도/경상도
일부 전세, 각 지방 군자감
분원의 예비곡은 수치에
미포함)

- 문·무 관료의 녹봉으로
12~14만 섬 지출
- 매년 10만 섬 내외의 잉여분
발생

- 잉여분은 군자창·풍저창
이관 및 예비비 비축

- 수십년 이상 상황 반복, 곡식 저장 장소 부족으로 인해 창고 바깥에 쌓아서 보관

→ 비와 바람에 노출된 곡식이 썩어 나감

연산군 시기의 재정 상황

- 왕실의 세출 매뉴얼인 횡간(橫看)의 범위를 초과, 지출
- 호조와 각사의 재정이 타격을 입음
- 군자장, 풍저창, 사섬시(司贍寺) 등에 비축된 예비비 감축됨

중종 시기의 재정 상황

- 1517년: 25만 섬의 전세 세입(稅入) 유지 필요
 - 평안도와 함경도의 비축미를 중앙 재정으로 옮김
- 1529년: 군자창의 지방 분원에 비축된 곡식도 중앙으로 옮김

명종 시기의 재정 상황

- 세입(稅入) 25만 석 유지를 위해 안간힘
→ 중앙과 지방의 예비곡이 급격히 감소함
- **명종 중반 이후: 세입이 14만 석 이하로 떨어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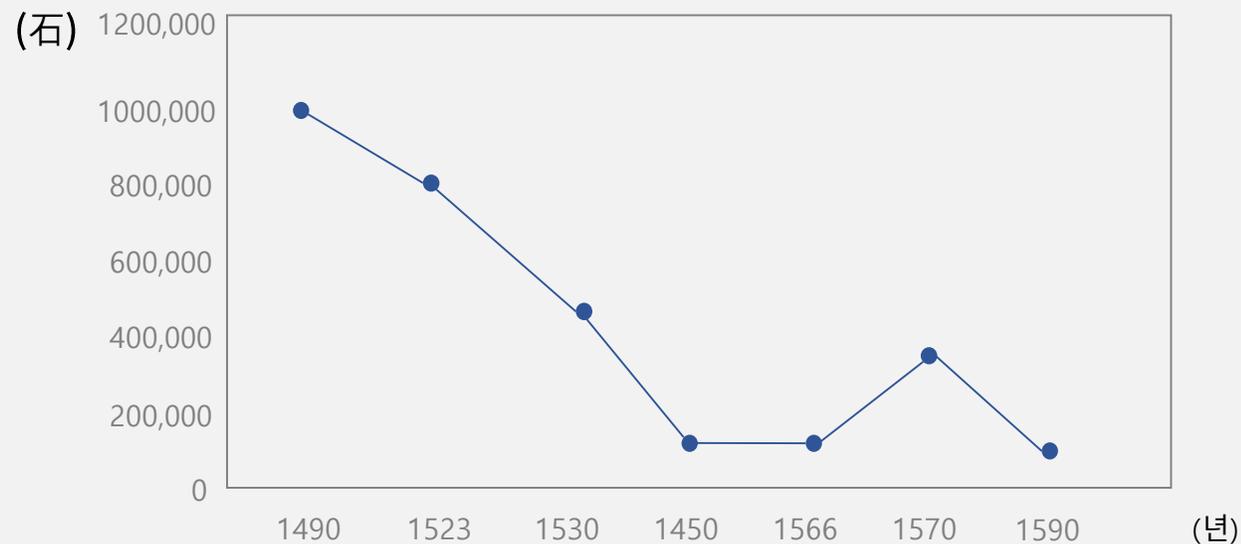
명종 대 중반 이후

- 양인층 감소: 농민층의 노비로 투탁, 유리, 대규모 이주
- 전세 납부 대상 토지가 사라짐
 - 1553년: 관료에게 녹봉 미지급 사태 발생
 - 1556년: 중앙 관료에게 지급했던 직전세(直田稅) 분급 중지

국가경상비의 수입, 지출 변동 추이



국가예비비의 감소추이



조선 시대 연도별 국가예비비

개혁 운동의 전개와 좌절

개혁세력의 활동 : 15년

- 중종 전반 기묘사림의 활동 시기(1515~1519)
- 인종 대 개혁적 사림파의 활동 시기(1544~1545)
- 선조 초반 개혁적 사림파의 활동 시기(1567~1574)

개혁 운동의 좌절

- 중종 전반 기묘사림의 활동: 1519년 기묘사화 발발
- 인종 대 개혁적 사림파의 활동: 을사사화 발발
- 선조 초반 개혁적 사림파의 활동: 1574년 동서 분당(東西 分黨)

개혁 운동의 전개와 좌절

- 개혁파는 양인 회복과 토지 확보에 초점
- 종량책, 한전론 개혁안 제시
 - 왕실, 훈척 등 기득권층 반발
- 2차례 사화, 동서 분당으로 개혁이 좌절됨

마무리

- 16세기의 상황

→ 국가 재정의 파탄과 농민들의 부세 급증

다음 차시에서는

-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준희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